

#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이 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 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Vol. 88》 2020년 6월 발행

그리운 우리 고향 ~ 오이타 후루사토 사진관 ~  
【 쓰쿠미시 / 다케타시 】



(쓰쿠미시)  
쓰쿠미 센소오도리



(쓰쿠미시)  
휴가동



(다케타시)  
아메우시노타키 폭포



(다케타시)  
고조노쓰키·미카사노

## 현립 미술관이 재개장하여 반 시게루 건축전을 개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휴관 중이던 현립 미술관이 감염 예방 대책을 실시하며 5월 11일부터 재개장했습니다.

현립 미술관은 올해 4월 24일에 개관 5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동 미술관을 설계하였으며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상 수상자이기도 한 반 시게루(坂茂) 씨의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 시게루 씨는 건축가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축을 설계하며 새로운 건축 자재와 수법을 개발하는 한편, 한신 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종이 로그하우스’, ‘종이 교회’, 동일본 대지진에 활용된 ‘피난소용 칸막이 시스템’, 쓰촨 대지진 복구 지원을 위해 ‘청두시 화린 초등학교 지관(종이 튜브) 가설 건물’을 짓는 등 재해 지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람회는 1층 전시실과 아트리움 공간을 합친 약 2,000㎡를 활용한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의 전시입니다. 본 전시는 외부에서도 전시실 안의 모습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등의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에는 도로 쪽 유리 수평문을 개방하여 거리와 일체화시킬 예정입니다. 반 시게루 씨가 설계를 하며 콘셉트로 잡은 ‘거리에 열린 텃마루로서의 미술관’을 체험하실 기회입니다.

## 坂茂建築展

仮設住宅から美術館まで

SHIGERU BAN

大分県立美術館 開館5周年記念事業

2020年 5/11 | 月 | - 7/5 | 日 |

〈時間〉10:00 - 19:00 (入場は閉館の30分前まで)

※金・土曜日は20:00まで開館

◎休展日なし

大分県立美術館



# 「오이타 쿠라우도(喰らうど) 펀딩」 목표액 달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오이타 시내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이타 현 디자인 협회(에치다 쓰요시越田剛史 회장)가 5월 1일에서 31일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오이타 쿠라우도(喰らうど) 펀딩’. 내용은 ‘오이타 시내 음식점을 선불 혹은 모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모금된 자금 중 필요 경비를 뺀 잔액을 각 음식점에 전달하여 지원자는 리워드로 식사권 등을 받습니다. 지원 종류로는 ‘식사권’, ‘모금 및 식사권’, ‘모금’ 3종류로 리워드에는 식사권 외에도 현 디자인 협회 소속 크리에이터가 디자인한 티셔츠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당초 목표이던 300만 엔은 보름 만에 그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500만 엔도 3주 만에 달성하여 다시 한번 800만 엔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31일에는 목표하던 800만 엔을 크게 웃도는 11,328,000엔(1,788건)이라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7월 이후에 참가 점포에 지원금이 전달되며 지원자에게는 식사권 등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음식점과 그 이용자 사이의 유대 관계가 깊어져 오이타 시내에도 활기가 되찾아 오기를 바랍니다.



**5/1~5/31** おおいた喰らうどファンディング  
**支援総額**  
**¥11,328,000**  
**支援口数**  
**1788口**  
**にて終了。**  
**大感謝！！**



# 시정촌 소식【벳푸 시(別府市)】

## 【벳푸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제 관광 온천 문화 도시인 벳푸 시에도 영향을 주어 골든 위크 숙박객 수가 전년도 대비 98% 감소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이것을 ‘전 국민이 Stay home을 지킨 결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의료 종사자 여러분과 Stay home을 지킨 여러분 덕분에 긴급 사태 선언은 해제되었지만,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업을 기간산업으로 하고 있는 본 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대단히 답답할 따름이지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 다시 고객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책 사업으로 ‘고용 지키기’, ‘사업 지키기’, ‘시민의 건강·생활 지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요식업을 돕기 위한 시민 11만 7천 명의 테이크아웃 프로젝트 ‘벳푸 엘 메시(別府エール飯)’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반향을 일으켜,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급식을 대체하는 도시락을 100엔에 배달하는 ‘어린이 엘 도시락’, 음식점 한정으로 프리미엄 포함 ‘엘 쿠폰권(エール食うぼん券)’, 오이타 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박 2천엔 호텔 숙박 보조금이 나오는 ‘유고모리 엘 박 사업(湯ごもりエール泊事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지로 확산된 엘 메시 프로젝트



학생 대상 식재료 배부

여기에 벳푸에서 생활하는 많은 학생을 돕기 위해 ‘학생 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쉬게 되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쌀과 파스타를 배부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준비를 돕고 시민 생활 환경 정비 등 시정 협력에 사례금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협력 활동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도 부디 몸조심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예전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벳푸 온천에 방문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ick Up!** 오이타의 「지금」

# 오 이 타 현 소 식

※국제정책과에서 신문 등을 참고로 작성

## 현내에서 사회 경제 활동 재개의 움직임

5월 14일 오이타 현을 포함한 39개 현에 내려졌던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었습니다. 본 현에서는 4월 21일 이후로 새로 확인된 감염자 수가 0명인 날이 이어져 감염 예방책을 지키며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1일에는 현립 중·고등학교, 도서관·미술관·역사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었고, 현 내의 초 중 학교에서도 각 시정촌의 감염 상황에 따라 분산

등교 등 대책을 세우며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18일에는 휴관 중이던 오이타 역의 상업 시설 ‘아무 플라자 오이타’가 한 달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현 내의 일부 관광 시설도 점차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평소와 같은 생활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현내에도 인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 임시 의회에서 새로운 유학생 지원책 성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 등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유학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오이타 현의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이 임시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긴급 지원 사업’(예산 62,200천 엔)으로서 ①유학생에게 특별 장학금 지급, ②대학 컨소시엄 오이타의 생활 자금 특별 대출 제도 조성, ③유학생에게 오

이타 현 유학의 매력 등을 모국에 소개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을 지원함과 동시에 유학처로서 본 현의 매력을 선전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 및 유학생이 많은 오이타 시·벳푸 시에서도 학생을 위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유학생이 안심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이타 현 국제교류원이 생생한 OITA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셰 신란  
(Xie Xin Lan)

얼마 전, 오이타에 산 지 2년 만에 드디어 친구의 권유로 구쥬 꽃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외출 자제 조치도 완화되어 공원은 꽤나 붐볐습니다. 옛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듯한 어르신, 네모필라 꽃밭에서 즐거워 보이는 가족, 애완견을 데려온 커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많이 걸어서 피곤해질 때는 찻집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찻집에서는 활짝 핀 장미꽃향을 맡으며 장미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아쉬웠지만 장마철 하면 떠오르는 수국 모양 브로치를 사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당일치기 여행에는 진짜 수국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현 내의 최신 관광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투어리즘 오이타 홈페이지)  
<https://www.visit-oita.jp/>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인회 활동(친목 모임 등), 유학생 OB의 근황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오이타 현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기사제공 및 문의】 국제정책과 담당 : 시게이시 【Mail】 [a10140@pref.oita.lg.jp](mailto:a10140@pref.oita.lg.jp)